壬申年을 보내면서

流水와 같은 世月을 또 한번 實感합니다. 한해를 보내고 나면 그해의 反省이 있고 새해를 맞으면서 희망찬 포부를 구상해 보는 것이 世上事 되풀이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결코 무심할 수는 없다.

92年度 未洽点 補完으로
93年度는 一絲不亂으로 飛躍하자

◇ 宋景太會長

本人이 協會제9代會長으로 連任한지 벌써 두해째를 보내게 되면서 一寸光陰인들 아껴써야 하겠다는 감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任期中 기필코 協會基盤을 반석위에 굳혀놓아야 하겠다는 野望에서 동분서주 하였습니다만 目標에는 미흡한점이 아직 남아있는데 世月은 홀러만가니 조급한 마음 禁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하 간부급會員을 위시하여 모든 生産會員任들이 物心兩面의 聲援과 협조를 하여주신 德分으로 오늘날 큰하자없이 壬申年한해를 보내게 된데 對하여 충심으로 感謝를 드리면서 그 勞苦를 致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本人은 저물어가는 92년을 돌이켜 보면서 希望찬 새해 93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는 對內外的으로 多事多難했다고 생각되며 그 주변영향으로 경제적 不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年初의 總選과 年末의 大選등 큼직한 國事는 경제伸張을 全般的으로 위축시켜 놓았다고 보여지나 우리 生藥協會는 그런데로 꾸준한 成長을 가져왔다고 자위하고저 합니다.

그 첫째는: 前年度에 別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評價된 계약栽培를 生産會員 所得증대 측면에서 언론을 통하여 弘報한바와 같이 과감히 倍로 擴大하여 實施한바 있고 現在 生産地를 순회하면서 수확 및 조제, 出荷절차를 지도하고 있는中에 있습니다. 이미 本기관지나 농민신문을 통해서 全量수매의사를 약속대로 시행할것을 기홀보한바 있음으로 설사 가격상승으로 인한 납품기피가 있더라도 일반유통으로 인한 소득은 보장할 수 있을 것임으로 계약재배 기본目的은 達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귀를 제외한 삼도시호 및 황기는 전량수매하여 현금으로 결재하고 있음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고무적인 기틀이 될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세계적인 수입開放시대를 맞아 생약수입쿼타 조정 및 통제에 최선을 다한바 있으나 여러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생산회원에게 적지않는 심려를 끼쳐드린게 유감으로 생각되나 한편 생약안정기금을 목표한데로 확보하게 되어 년말 년시를 기하여 수매 및 유통조절에 직접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들입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자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내년도에는 심려을 들어주는 方案을 최선을 다하여 강구하겠습니다.

세째는: 행정지도체제를 가일층 정비하여 본부집행부 않을 자리를 확고하게 굳혔으며 산하 지부 二元化조직을 지부회의체제로 단일화시켜 일사불란한 계통확립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의 성과는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으로 내년 1/4분기까지는 정립이 완료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네째는: 中央共販場 운영 活性化를 위하여 적절한 사업비를 투자하므로서 만성적인 赤字운영을 흑자경영시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제는 계통출하하는 생산회원에게는 선대를 과감히 결제하게 되었음으로 그만큼 去來量이 활발해지고 있기때문에 앞으로의 共販場위상도 정립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현재 계획중에 있는 93년도 중앙공판장경영계획이 완성되면 이에 자금투자가 수반될 것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다더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금년도는 어느때보다도 불실분사무소를 많이 정비하였습니다.

넌례적인 업무이기는 하나 보고만으로 우야무야 지나간 정비형태를 벗어나서 직접순방확인 또는 사진촬영등 근거포착으로 유명무실한 업소를 과감히 정비하여 불신요소를 쇄신한바 있었음으로 현재는 다소 조직망이 위축되었다고 보아지나 그 공백에 대한 보충계획이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내년중에는 행정구역을 거의 모두 채울것이 예상됨으로 앞으로는 비온 뒤의 땅이 더욱 다져질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를 反省하여 미흡된 분야를 개척 및 보완할 계획을 마련중에 있음으로 癸酉年새해를 맞아 다시 뵈옵고 人事드리기로 하면서 산하 모든 會員任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 일취월장할 것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會長 宋景太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連載 韓方순례 >36<

피부의 색깔에 의한 진단

〈續〉

마찰하여 푸른색이면 기에 이상이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몸의 특정부위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감각적으로 감지되는 신체의 반응을 기초로 건강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괄해 보았고 앞으로도 이 방법이 주된 진단법으로 활용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피부에 어떤 외적인 자극을 주어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는 피부를 문질러서 그 반응으로 일어나는 피부의 색깔을 통해 아는 진단법이다.

그 요령은 어느 부위는 피부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마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활성반응이라고 하여 살아있는 신체에서는 일정한 특수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를 관찰하여 건강도를 진찰하는 것이다.

그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체의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①마찰하면서 즉시 창백한 색이 나타날 때는 모세혈관의 수축력이 좋은 상태를 나타낸다.

②10초정도 경과했을 때 붉은 색을 띠기 시작하면 혈관의 수축과 확장의 어느 작용도 좋은 상태를 가리킨다.

③30초를 지났을 때 피부에 어렴풋이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모세관뿐 아니라 손동맥의 확장작용까지 이상이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둘째, 건강치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①마찰을 하여 홍색이 아닌 푸른색이 나타났다면 혈액 속에 흐르는 기에 이상이 있음을 제시하는 징표로 심장 아니면 폐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②만일 누런색이 나타난다면 혈액중에 담즙이 섞여 있는 상태이므로 간장에 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눈의 흰자위에까지도 황색이 된다면 황달의 징조이므로 즉시 치료를 선두르지 않으면 안되겠다.

체형에 의한 진단

1 올바른 자세는 건강을 좌우한다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을 단순한 원리적인 교훈명언으로 만들어야 할까?

영국신사는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는 생활은 이미 한국에서도 양반의 품위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

(祝)
發展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 강원도지부

지부장 박영임
원주시 사무소장 황인구 (철원군소장겸직) (본부부회장)
원주군 〃 전승표
영월군 〃 심호섭
춘천시 〃 허수
평창군 〃 함영완 (본부이사)
인제군 〃 이종렬
태백시 〃 우대기 (공판장장겸직)
홍천군 〃 박건훈
삼척시 〃 김시부
양구군 〃 강연백
삼척군 〃 김원복
양양군 〃 김항래 (공판장장겸직)
횡성군 〃 조대현
속초시 〃 임원길
동해시 〃 김정태
강원도 공판장장 황성구
정선군 〃 최윤철
평창군 〃 함승주
인제군농부 〃 채덕기

1992년 12월 20일 현재